저는 참 행복한 정치인입니다

저는 참 행복한 정치인입니다.

다들 선거에 지고나면 옆에 있던 사람도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외면하는데, 저는 비록 떨어졌지만 더 많은 분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얻고 있으니 저처럼 행복한 정치인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저 하나가 잘되라는 것보다 나라 전체가 잘 되어야한다는 기대들이 저에게 쏟아지는 것 같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여유가 생겼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개혁을 구상하는데 많은 지혜를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

부산에서 낙선인사를 다니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노무현은 부산을 그래도 사랑합니다'는 플랭카드를 거리에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하고 우시는 것을 보면서 저의 부산출마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국민만을 믿고 제 온몸을 던져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